

# 11강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는 복음의 능력(고후 10:1~18)

(읽을 말씀 10:1~8)

## 오늘의 포인트

- 복음은 인간의 교만과 자랑을 깨뜨린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 자신 안에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정신구조와 생각이 있는지 살펴보라.

## 10~13장의 문맥 이해

-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마지막 권면과 도전
- 대상의 전환: 회개한 사람들 → 자신에 대하여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
- 어조: 더 강하고 담대한 선전포고
  -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한 복수나 개인적 감정의 표현이 아니다.
  - 아직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마음이다.
  - 이 편지를 쓰고 나서 고린도교회를 방문하게 될 때에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고 죄를 정할 것을 알기에(고후 10:6; 13:1~2), 그전에 주는 최후의 권면이다.

## 바울 사도에 대한 또 하나의 비난(1~2, 9~11)

“바울은 앞에서는 말 못하고 뒤에서 편지로는 으름장을 놓는 사람이다.”

(10:1~2)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10:10)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 <바울과 테클라 행전>(1~2세기)에서 바울 사도의 외모에 대한 묘사:
    - “중키에 머리카락은 별로 없고 다리는 약간 절뚝거리는 안짱다리이며 눈은 컸으며 그의 눈썹은 양쪽이 서로 붙어있고 코는 꽤 높았다.”
  - “말이 시원하지 않다”는 비난
    - 바울 사도는 고린도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아볼로에 비하면 설교의 웅변적 기술이 떨어졌을 것이다.
- (행 18:24)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 대적하는 자들은 바울 사도의 외모와 연약함의 관점에서 바울의 편지와 모든 것을 판단함으로써, 이 편지도 으름장에 불과하지, 바울이 오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 바울 사도는 이런 비난을 인정한다(1)

(10:1)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 하지만 그 비난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대하였다는 증거다.

## “나는 너희를 담대하게 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2)

(10:2)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 =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행하는 자’
- ‘담대한 태도로 대한다’ =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말하는 대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드러내고 싶어한다.
- 자기를 증명하는 대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억울한 일을 많이 겪을 것이다. 그러나 기뻐하라!

(마 5:11~12)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 사도의 권위는 살아있다(1)

(10:1)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 ‘나 바울은’ → 헬라어의 강조용법

## 바울 사도의 선전 포고(3~6): “우리의 무기는..”

(10:4)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 어조의 변화
  - 사도직을 변호하는 방어적 태도 → 공세적—고린도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향한 선전 포고
  - 영적 무기로 전쟁을 치르겠다고 하는 영적 선전 포고

## 1단계: 진영을 무너뜨린다.

(10:4)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 바울 사도의 무기 =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 ‘견고한 진’ =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자들의 자기자랑에 의해서 세워진 자기 신뢰와 자기 높임의 방어진’
-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주장의 근거를 파괴할 것이다. 10~13장은 그것을 보여줄 것이다.

## 2단계: 높게 세워진 탑을 무너뜨린다.

(10:4b~5)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 ‘높아진 것’ = 진영이 무너진 후에 공격 목표는 ‘높게 세워진(높아진) 탑이다.’

- 바울 사도의 파괴 대상 =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입니다 (4b~5a). → 고린도교회 대적자들의 죄성에 물든 사고 패턴과 하나님께 반역하여 자기 삶을 살아가는 정신 구조
  - 고린도교회 대적자들은 그들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결코 바울 사도를 용납할 수 없고 곧 복음과 그리스도를 용납할 수 없었다.
  - 그들의 사고 패턴은 죄성에 물들어 세상적 방식으로는 똑똑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게 하지 않을 것이었다.
  - 그들의 정신 구조에는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 하나님 없는 사고 구조, 하나님 없는 이론, 하나님 없는 세상 방식으로는 결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복음의 진리가 그들에게 결코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 → 이 정신 구조
  - 자신들은 너무나 옳고, 그래서 바울은 틀렸다.
  -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참됨을 가늠하는 것도 자신들의 이성적 판단이다.
  - 바울 사도는 이것들을 다 파괴하겠다고 선언한다.
- 회심이 일어날 때
  - 자신의 명석한 판단력이나 지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의 탐이 무너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다.
  -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교만의 탐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언제라도 고린도교회의 바울 사도를 대적하는 자들과 같은 위치로 돌아가게 된다.

### 3단계: 적진의 군사들을 포로로 사로잡는다.

(10:5b)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 고대 전쟁에서 진영이 무너지고 탐이 무너진 뒤에는 적진의 군사들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 ‘모든 생각’ = 인간 존재의 지성의 중심인 ‘정신’(mind) = 세계관
- "참된 회심은 세계관의 회심이다."

(10:6)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될 자들이 다 복종하게 되면, 고린도를 방문하여 남은 자들—여전히 바울 사도와 복음을 반대하고 거짓 사도들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10:7)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직설법)
  - 이 문장은 의문문이나 명령문으로도 번역이 가능하다.
  - (KJV—의문문) Do ye look on things after the outward appearance?(너희는 모든 것을 외모로만 보느냐?)
  - (RSV, ESV—명령문) Look at what is before your eyes(네 눈 앞에 있는 것을 보아라)
  - 점점 명령문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많은 지지를 받고 있음: ‘너희 눈 앞에 있는 명백한 실상을 좀 보아라’
  - 그들이 참 신자라면 바울 자신이 참 사도라는 것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들이 끝내 바울 자신의 사도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판단으로써 자신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 바울 사도의 싸움의 성격(12~18)

### 싸움의 핵심은 복음이며, 복음은 모든 교만과 자랑을 깨뜨린다(12).

- 자랑의 문제 – 바울 사도가 이 싸움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문제
    - 세상적인 자랑, 인간적인 자랑
- (10:12)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써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써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들)’ = 자화자찬하는 자들
- ‘지극히 큰 사도들(super-apostles)’(11:5)
- 자랑은 가장 뿌리깊은 죄성인 교만으로부터 나온다.
  - 이 교만과 자랑을 깨뜨리는 것이 복음이다.
    - 바울 사도가 싸우는 싸움의 핵심은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여 죄인 안에 뿌리깊은 교만을 뿌리뽑는 것이었다.
    - 교만을 깨뜨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이거나 거짓 회심이다.
    - 복음은 자만과 교만을 건드리고 자랑과 자존심을 거스르고, 마침내 그 뿌리를 제거한다.

### 어리석은 자랑(12):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기준이다.

- (10:12)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써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써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 거짓 사도들의 자화자찬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방식’이었는데, 사도됨은 누군가와 비교함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그들의 자랑은 어리석은 것이었다. → “지혜가 없도다”
  - 복음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함으로써 자기의 우월감이나 열등감으로 인도하는 방식을 파괴한다.

### 싸움의 목적은 고린도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8).

- (10:8)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 바울 사도의 싸움의 목적: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거나 오해를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교회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들이 주님께 복종하기를 바울 사도는 원한다.
  -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권위는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권위였다. 이점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사도직을 아무리 심하게 자랑한다고 할지라도(거짓 사도들이 자기를 자랑하듯이) 결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에게 사도직을 주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이다.

### 자랑이 합당할 때(13~17): 합당한 자랑

- 합당한 자랑이 있다.

##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자랑하라(13~16)

(10:13)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 바울 사도의 자랑
  - ‘분수 안에서의 자랑’
  -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는 자랑
- 분수, 범위 한계 안에서의 자랑’ —지리적 경계?

(갈 2:9) 또 기둥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의 지역인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행 18) 거기서 열매를 얻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정해주신 기준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 사도는 하나님이 주신 범위의 한계 안에서 자랑한다.
- 거짓 사도/교사들의 자랑

(10:15)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자랑하는 것
- 무아경 체험, 영적 능력, 설교의 웅변적 솜씨, 사례비의 크기...
- 바울 사도가 건축해 놓은 터 위에서, 다른 사람의 영역에서 자랑하는 사람들
- 그들은 바울 사도가 건축해놓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도 자기들의 사역 때문에 이 교회의 생명력이 유지된다고 자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남의 영광을 훔친 자랑이었다.
- 바울 사도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함으로써, 자신의 사역의 한계 — 이방인의 사도로서 — 안에서 그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가기를 소망한다.
- 만일 고린도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참 믿음 안에서 자라간다면, 그들은 바울 사도의 이방인 전도의 사역을 힘껏 지원하게 될 것이다.
- 바울 사도의 바램은 고린도를 선교의 베이스로 삼아 로마와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었다(16절).

(10:16)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러 함이라

## 합당한 자랑의 원칙 (17; 렘 9:23~24)

- (10:17)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합당한 자랑의 원칙 →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 구약(예레미야 9:23~24)의 인용

(렘 9:23~24)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삶에서 성취하신 것 안에서 자랑하는 것
  -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기인하므로 아무도 자기 영적 상태나 힘 또는 은사가 자신의 지혜와 능력에서 온 것처럼 자랑할 수 없다.

- 지혜로운 자나 힘있는 자 그리고 부자는 그들이 남이 가지지 않은 지혜와 남이 가지지 않은 힘, 그리고 남이 가지지 않은 부를 가졌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들의 지혜와 힘과 부가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온 것 처럼 행세할 때 비판을 받게 된다.
-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
- 합당한 자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다.
  - 바울 사도는 자랑을 그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고 외친다. 이것만이 인간이 할 수 있는 합당한 자랑이다.
- 고린도교회의 거짓 사도들과 바울 사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자랑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부적절할 뿐 아니라 악한 것들 뿐이었다.
  - 이것들은 다 복음으로 깨져야만 하는 것이다.
  - 바울 사도는 그것들을 다 깨뜨리고, 그것들을 깨뜨리는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한다.

##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 되라(18).

(10:18)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 자화자찬하는 자가 마지막 심판날에 옳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다.
- 옳다고 인정받는 자는 주께서 칭찬하는 자, 주께서 자랑하는 자다.

## 오늘의 적용

- 능력은 사람의 비범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 바울 사도가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었다.
  - 참된 복음만이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 자랑을 뿌리뽑는다. 참된 복음의 진리는 죄성에 물든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만, 이것은 우리는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되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교회가 되라.
- 신앙(성숙)의 증거는 자랑의 기준이 변하고 교만이 깨지는 것이다.
  -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자랑하고, 다른 교인과 비교하여 자기를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복음의 진리로 벗어버리라.
  -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을 포함한 전존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포로로 사로잡히는 은혜를 구하라.